

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
아래 경제 기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[미국 경제]

- WSJ: 월가 데이터, 미 고용 둔화 보여줘
- WSJ: 관세 대응 재고 늘린 소매업체들 연말 시즌에 판매 우려

[미국 금융]

- Bloomberg: 미정부 섀다운 속에 금값 4천불 돌파
- YahooFinance: 골드만삭스 “증시 아직 버블 아니다”

[비자]

- NYT: 트럼프의 H-1B 비자 수수료는 대학들에도 부담

[미 행정부]

- Bloomberg: 연방 공무원 25만여명, 급여 못 받아

[인공지능]

- YahooFinance: 수십억 달러의 미 AI 투자 계속된다

[주택]

- WSJ: 모기지 금리가 조금만 떨어져도 재융자 수요 크게 증가

[오일]

- Bloomberg: 미국 원유 재고 감소로 유가 상승

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
- YahooFinance: 테슬라, 보다 저렴한 2개 모델 공개

[미국 경제]

WSJ: The Unofficial Jobs Numbers Are In and It's Rough Out There

월가 데이터, 미 고용 둔화 보여줘

- 연방정부의 섀다운으로 관련 부처의 일자리 지표가 나오지 않는 가운데 월가의 대체 노동 자료들은 미 노동 시장이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.
- 뱅크오브아메리카는 10월 실업 수당 건수가 작년 동월에 비해 10% 늘었고, 일자리 성장도 둔화되고 있다고 밝혔다.
- 또한 Carlyle Group는 9월의 미 민간기업 일자리 숫자가 17천개만 증가해 8월의 2만2천개보다 뒤쳐졌다고 발표했다.

WSJ 기사

WSJ: Retailers Stockpiled to Avoid Tariffs. The Holidays Will Put That to the Test.

관세 대응 재고 늘린 소매업체들 연말 시즌에 판매 우려

- 미 소매업체들이 트럼프의 관세 조치 대응 차원에서 제품 규모를 의도적으로 늘렸다.
- 그러나 현재 인플레이션을 우려한 소비자들이 구매가 줄어들 경우, 소매업체들은 재고를 소진하기 위해 할인을 해야 하는 리스크를 안고 있다.
- 이와 관련 소비자들의 84%가 향후 6개월간 소비를 줄일 것이라고 밝혔으며 올해 연말 홀리데이 시즌에 전체 소비 지출이 5%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.

WSJ 기사

[미국 금융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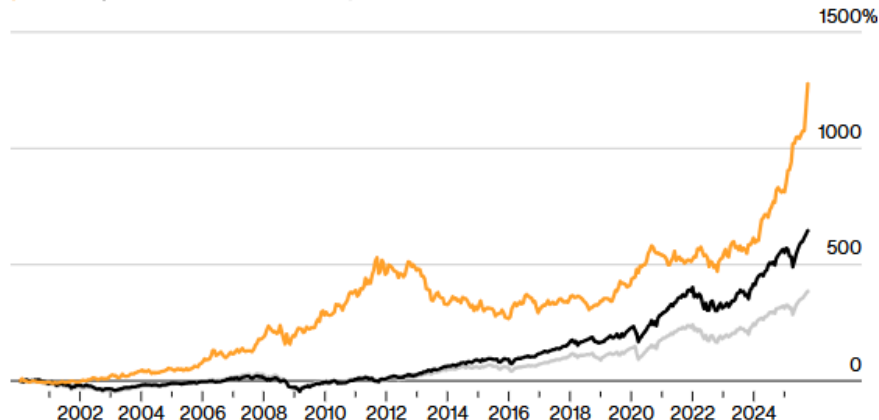
Bloomberg: Gold Tops \$4,000 for First Time Fueled by US Shutdown 미정부 셧다운 속에 금값 4천불 돌파

- 연방정부의 셧다운과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 가운데 미 금 현물 가격이 처음으로 온스당 4천불을 돌파했다. 오늘 수요일 기준 온스당 4천65불 65센트에서 거래되고 있다.
- 금값은 그동안 글로벌 무역에 대한 우려, 연준의 독립성 우려, 그리고 미 재정 상태의 불안정에 대한 우려로 금값은 올해 50% 이상 뛰었다.
- 더불어 지정학적 긴장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각국 중앙은행들은 빠른 속도로 금을 매입하고 있다.

Gold Has Outperformed US, Global Stocks This Century

Change since January 1, 2000

Gold S&P 500 Total Return MSCI World Net Total Return



Sources: Bloomberg, S&P, MSCI

Bloomberg 기사

YahooFinance: Goldman Sachs strategist: No stock market bubble, yet 골드만삭스 “증시 아직 버블 아니다”

- 골드만삭스의 글로벌 선임 주식 전략가는 투자자들의 행태와 시장가격을 고려했을 때 과거 버블과 유사한 요소들이 있다면서도 “그러나 현재는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”고 말했다.
- 과거와 유사한 부분으로는 높은 밸류에이션, 좁아진 시장 주도 종목도, 자본 집약도 상승을 꼽았다.

- 그는 보통 버블이 일어날 때는 신기술과 연결된 기업들의 총 시가가 이들 기업들이 실제 창출하는 현금 흐름을 초과할 때라는 것이다. 그러나 이 같은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.
- 또한 현재 AI붐은 일부 테크 대형 기업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지만 시장 과열을 촉발할 만한 폭발적인 경쟁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.
- 그는 현재 기업들은 펀더멘털이 강하고 닷컴 시대와는 달리 이들 AI 기업들의 현금 상태는 좋다고 진단했다.

YahooFinance 기사

[비자]

NYT: Trump's H-1B Visa Fee Could Strain Universities and Schools 트럼프의 H-1B 비자 수수료는 대학들에도 부담

- 트럼프 행정부의 H-1B 비자 수수료 인상은 기업뿐만 아니라 대학교에 큰 타격을 줄 것이다.
- 많은 대학과 교육기관은 의료, STEM 분야에서 인력 충원에 H-1B 비자를 의존해 왔으나, 이번 정책으로 우수 인재 확보와 연구 혁신에 제약이 생길 것으로 우려된다.
- 특히 예산이 적은 소규모 대학이나 교육기관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외국인 채용을 중단하고 대체교사를 장기적으로 활용하게 되면서 수업의 질이 저하될 우려도 있다.
- 정부는 미국인 노동자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지만, 교육계 인사들은 미국의 경쟁력 약화와 글로벌 협력 저해를 우려하며 예외 조항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.

NYT 기사

[미 행정부]

Bloomberg: Federal Workers Go Unpaid, Adding Pressure to End Government Shutdown 연방 공무원 25만여명, 급여 못 받아

- 연방정부가 2주째 섯다운에 접어든 가운데 연방 공무원 25만명 이상이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.
-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섯다운이 끝난다고 반드시 급여 소급 적용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. 이 같은 입장은 지난 40년간의 관행을 없애고 자동 소급 지급을 허용하는 2019년 법에 반하는 조치로 보인다.
- 급여를 받지 못하고 해고될 경우 예전 섯다운 보다 더 심각한 경제적인 여파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며 가게의 수입이 줄어 결국 미 경제성장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.

Bloomberg 기사

[인공지능]

YahooFinance: Bubble or not, AI continues to draw billions in investments

수십억 달러의 AI 투자 계속된다

- AI 버블 혹은 AI 붐인지에 관계없이 AI 에 대한 투자는 대규모로 지속되고 있다.
- OpenAI는 아직 수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이지만 인공지능 관련 데이터 센터를 세우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다.
- AMD는 OpenAI에 차세대 GPU를 제공하고 OpenAI는 AMD 10%의 지분을 매입하기로 했다.
- 또한 Nvidia는 OpenAI에 1천억 달러를 투자하게 되는데 이 회사는 Nvidia의 주요 고객이다.
- 또한 아마존과 구글, 메타,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체 AI 데이터 센터를 위해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다.

YahooFinance 기사

[주택]

WSJ: Homeowners Are Pouncing on the Tiniest Drop in Mortgage Rates

모기지 금리가 조금만 떨어져도 재융자 수요 크게 증가

- 최근 30년 모기지 금리가 6.26%까지 하락하자 주택소유자들이 빠르게 재융자에 나서며, 재융자 건수가 80%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났다.
- 특히, 2023~2024년에 주택을 구입한 고금리 대출자들이 재융자의 주축이 되었으며, 이들의 부채 대비 소득 비율이 개선되면서 가계 재정에 숨통이 트였다.
- 모기지 금리가 6%까지 하락할 경우, 약 590만 건의 대출이 유리한 재융자 구간에 진입하며 금융사와 소비자 모두에게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.
- 기존 저금리 대출자는 대부분 재융자 유인이 없지만, 일부는 높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주택 자산을 활용한 현금 인출 재융자를 선택하고 있어 소비 여력을 높이고 있다.

WSJ 기사

[오일]

Bloomberg: Oil Climbs With Inventories Seen Declining at Key US Storage Hub

미국 원유 재고 감소로 유가 상승

- 미국의 주요 원유 저장소인 Cushing 저장소에서 주간 원유 재고가 180만 배럴 감소했다는 API 보고 이후, 국제 유가가 배럴당 \$66를 상회하며 상승했다.
- 다만 OPEC+의 생산 확대, 미국의 사상 최대 원유 생산 전망, 러시아의 수출 증가 등으로 인해 공급 과잉 우려가 가격 상승을 제한하고 있다.
- Goldman Sachs는 내년까지 하루 평균 200만 배럴의 공급 과잉이 지속될 것이라며, 2026년 브렌트유 평균 가격을 \$56로 전망했다.
- 한편 Exxon Mobil은 이라크의 Majnoon 유전 탐사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며, 약 2년 만에 해당 지역에서 활동을 재개할 계획이다.

Bloomberg 기사

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
YahooFinance: Tesla reveals cheaper Model Y and Model 3 Standard versions

테슬라, 보다 저렴한 2개 모델 공개

- 테슬라는 보다 저렴한 버전의 모델인 Model Y Standard와 Model 3 Standard를 공개했다.
- 해당 모델은 각각 \$39,990와 \$36,990의 가격으로 출시되었으며 기능과 외관이 간소화되었다. 321마일 주행거리를 제공하며 오토파일럿·FSD 기능 미지원, 라디오 제거, 실내 조명 축소 등이 특징이다.
- 해당 발표는 미국 연방 EV 세액공제 종료 직후에 이루어졌으며 판매량 증가를 위한 전략적 출시로 해석된다.
- 한편 테슬라는 올 하반기 저가형 모델의 대량 생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3분기에는 49만 7천대를 인도해 분기 최고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.

YahooFinance 기사

KOCHAM | 460 Park Ave. Suite 410 | New York, NY 10022 US

[Unsubscribe](#) | [Constant Contact Data Notice](#)